



'문화답사기' 필독서 봄

"현대 지식인들은 전통문화에 관한 한 무지에 가깝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 문화의 철저한 외면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담은, 우리 것·우리 문화를 일일이 찾아 소개한 답사기와 수상집의 출간행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93년 5월 나온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이후 <명찰순례> <살아있는 국보박물관> 등 10여종에 이른다.

이같은 출판현상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커진 것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는 것이 출판계나 이미 이들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다.

특히 불교인들은 우리 문화유산의 80%가 불교와 연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불교인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찰이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주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식견을 보완해 우리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를 생활 속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불교를 직접 체험으로 내세운 책도 <절을 찾아가서> <불교문화기행> <절로가는 마음> 등 4종이나 된다.

고은씨의 불교문화기행(절을 찾아가서)(책세상 펴냄)는 낙산사 직지사를 비롯한 전국 43개 사찰과 지리산 가야산 등 불교문화와 관계가 깊은 산을 떠돌며 쓴 저자의 '방랑에 대한 한 기록'이다. 따라서 "만약 신라가 석굴암을 남겨놓

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점에서라면 역사의 은혜, 역사가 베푸는 긍지와 위안은 어떤 성취나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감회가 그대로 전해진다.

각 장마다 사찰의 위치와 역사, 문화재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씨의 글과 사진작가 김대벽씨의 사진을 곁들인 <절로가는 마음>(책민드는 집)은 불교사 연화교, 부석사 무량수전, 석굴암

사천왕상 등 사찰 조형물의 배어난 솜씨를 불교신앙적·문화적 의미에 따라 밝히고 있다. 절구경 하듯 현장감을 살린 문장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씨(84년 작고)의 수상집(학고재) 건축 불상 석탑 등 20개장으로 나뉜 문화유산의 조형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간결한 문체로 표현했다. 정양모 중앙박물관장은 서문에서 "이 글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깨우칠과 깊은 감동과 가슴앓함과 현연함과 시원함이 엮일 것"이라며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한 교인의 성품을 흠모하고 있다.

<명찰순례 1·2·3>(최완수, 대원사)은 명찰 56곳을 순례하며 그곳에 있던 역사의 숨결을 전해주고 있다. 현대교육이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데 급급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소홀히 하 있다는 반성에 따라 시문사화(詩文書畵) 조각 건축 유교 등 전통문화에 대한 총체적 지식

명사추천

불 서 100 선

萬海편찬 「불교대전」

"불자"라고 하면 「佛子」또는 「佛者」라고 쓰며 불문에 든 신자 또는 불제자를 뜻한다. 그러나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심과 가르침을 가운데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가. 표현과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에게도 진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비 불교만 아니라면 종파에 구애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인생의 진리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자기에게 가까운 하나의 종파를 선택하여 소속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소위 불교의 논의한 대가 불서(佛書)를 추천한다는 것은 주제넘고 외람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새 출판계를 보면 참말로 재주가 놀라운 천재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던 과거의 인물들을 마치 그 사람의 전생(轉生)인 존재처럼 여러 권의 소설로 엮어 내지 않는가. 실오한 생각자들의 진리를 글쓰는 나름대로 놀이를 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홍 문 화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 통일 역사의식 수록

한길사 전27권·CD 24장으로 펴내

1백70여 필진... 불교사 체계적 서술

지금까지 나온 한국사 관계 저작중 불교사 부분이 가장 많이 서술된 <한국사>(전27권, CD 24장, 한길사 펴냄)에 대한 관심이 고계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는 지난 86년 편찬 작업을 시작, 8년여에 걸쳐 완

간된 것으로, 진단학회의 <한국사>(전7권, 1959년)와 7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전25권)가 지닌 현대사 서술 제외, 관찬(官纂)이라는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또 민간출판사 단독기획에 의해 27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한국사>를 완간한 점도 출판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된다.

<한국사>는 중진과 소장층을 망라한 170여명의 학자들이 편집으로 참여했으며, 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최광식교수(효성여대·사학) 후만호(우리불

교문화연구소장) 체상식 교수(부산대·사학)등이 불교관계사를 집필했다.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강만길교수(고려대)는 지금까지의 한국사 서술이 "식민지시기와 분단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충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사의 대중화와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역사인식을 담되 △집필방법론과 역사인식 수용 등을 편집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국사>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인호씨는 "잘못된 역사서술을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는 '하나의 우리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라며 "주체적인 한국적 인문사회과학을 정립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27권은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1권)부터 '북한정치와 사회'(22권)까지 연대순에 의거 주제별로 서술했으며, 해방이후 현대사는 17권이 기획의도였다"라며 "주체적인 한국적 인문사회과학을 정립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모치즈키 신코 지음
진영 옮김

불교의 경전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소승승에 의해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해, 대승경전은 부처님 설법의 실제 기록이 아니라 후세 학자들의 편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승경전은 무

대승경전의 부처님정신 구현 밝혀

의미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저자의 입장이다. 즉, 대승경전에 나타난 인생관·우주관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신행의 나침반으로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경전 성립에 관한 연구' '이결 및 의위경론에 관한 연구' 등 2부로 나뉜 경전성립의 실증적 연구와 함께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대승경전임을 밝히고 있다. <불교시대사>, 1인5천원

대일경·금강정경

허일범 옮김
김영덕 옮김

대일경을 비롯한 밀교의 근본경전 7경을 번역했다. 동국여경원의 한글대장경 가운데 밀교부 첫책권이다.

대일경(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자경(大毘盧遮那佛神變加藏經))이 본래 명칭은 인도밀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6세기까지 인도의 전반기 밀교를 총괄한 경전이다.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主心品)을 비롯 전체 36품 가운데 제7권 5품은 한역본, 1~6권은 티벳본을 텍스트로 사서했다.

각 경전마다 총설한 주(註)를 달아 이해를 도왔으며, 진언은 '진언포기용례집'에 의거해 우리말 발음과 한자음을 병기했다.

수행된 경전은 대일경 외에 초희금강정경 15회금강정경 금강계품 등 금강정경과 대일경 금강정경 유희야경 소실지경 등의 내용을 약축(略出)한 도부다라니목(都鄙陀羅尼目) 등이다. <동국여경원,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강의	무비	불광
2	알기 쉬운 불교	연성부	불교방송
3	미라래비의 십만송	이정섭 역	시공사
4	자네, 도가 믿지 마나	효립	대원정사
5	무소유	법정	범우사
6	사자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림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진경각
8	연꽃문화	장지연	부다야
9	부처님의 십대제자	사사기세이	우리출판사
10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국대출판부

구입문의: (02)737-0695

불음 가득 · 범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2만 권 3천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감동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사지정보(회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등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등복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흥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중랑구 건지동 110-33 · 전화 (대표) 737-8881 (사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중랑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2, 5, 84, 159, 331, 588-2번